

아동의 초기 유아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hild Adjustment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김 지은

Dept. of Home Management, Kon Kuk Univ.
Assistant Prof.: Ji Eun Kim

〈목 차〉

- | | |
|------------------|------------|
| I. 연구의 의의 및 연구문제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vailability of support system and child gender to initial preschool adjustment was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on 72 middle-class Korean children(35 boys, 37 girls) between the ages of 31 months and 60 months who were entering preschool. Subjects were from intact families, all with non-working mothers.

Mothers completed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MSAS)and indicated the number of extended family members in the home as an index of social support. Classroom teachers completed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PBQ) for each child after the first 2 weeks and again after 6 weeks of school. Each child was observed by the research team during the first 2 weeks of school and again after the 6th-week using the Child Observation System (COS). Applying the COS observed behavior was classified as being in the dependent, neutral, or active mode. All instruments were culturally relevant as validated by Korean experts.

Maternal Separation Anxie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girls only, accounting for 11% of initial COS variance ($p < .05$).

In contrast, social suppor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boys only, accounting for 28% of initial PBQ variance when entered after MSAS($p = .005$).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itial and 6th-week adjustment was obtained in the expected direction on the COS with behavior improving with time ($t = -4.06, p = .001$).

Although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itial and 6th-week PBQ adjustment was also obtained ($t=-3.63$, $p=.001$), it was not in the direction expected, problematic behavior were found to increase with time.

Cultural and developmental factors help explain the findings. Given the patrilineal social system in Korea, boys are highly preferred over girls. Thus, the at-home support system, comprised primarily of grandparents,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particularly of first-born sons. In contrast, since girls are viewed as fragile and vulnerable, mothers may express greater separation anxiety about girls.

Finally, as would be expected, older children may be able to develop coping skills more readily than younger ones, as child adjustment on the COS significantly improved over the 6-week period.

1. 연구의 의의 및 연구문제

격리불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겪게 되는 경험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미래에 닥치는 격리불안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덜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최초의 격리불안 경험을 긍정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많은 아동과 부모들은 집에서 학교로 활동무대가 옮겨지는 과도기 동안 중요한 발달적 위기를 맞게 된다. 아동이 탁아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유아원에 입학할 경우 주요한 애착 대상 즉,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격리불안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동이나 부모들에게 모두 힘든 일이 되는데, 아동과 부모가 유아원에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격리불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머니가 격리불안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Jorde, 1984).

197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의 격리불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들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영아의 기질 (Miyake, Chen, & Campos, 1985), 연령 (Blehar, 1974; Field, Gewirtz, Cohen, Garcia, Greenberg, & Collins, 1984; Rossetti-Ferreira, Secaf, Blurton-Jones, Farguhar-Brown, & MacDonald-Moore, 1985),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 (Ainsworth & Bell, 1970; Smith & Pederson, 1988) 등이 있다.

격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는 격리될 때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이다. 어머니는 주요한 애착대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Clarke-Stewart, 1982),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어머니의 행동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ams & Passman, 1981; Field et al., 1984; Weinraub & Frankel, 1977). 특히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일을 통해 얻은 대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동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면접에서 밝혀진 바로는, 집 밖의 취업을 원하는 어머니들은 집 안에 있기를 원하는 어머니들보다 격리불안을 일찍이 표현하지만 곧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Bride & Belsky, 1988). 전업주부도 격리불안을 경험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는 취업모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가족 내에 지지체계(support system)가 있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확대가족일 경우, 조부모세대와의 상호작용은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지지를 해 줄 수 있어 핵가족의 어린이들 보다 또래와의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 여러 명의 양육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유안진, 1988; 유영주, 1990). 따라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가족내 지지체계가 있을 때 어머니의 격리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두 변수가 아동의 유아원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해 보고

자 한다.

아동의 성별 또한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cBride와 Belsky(1988)의 연구에 의하면 남아의 어머니들이 더 크게 격리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처음으로 유아원에 들어가면서 적응하기까지 격리불안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한 연구로는 4주에서 6주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cCutcheon & Calhoun, 1976; Martin-Huff, 1983).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어머니의 격리불안, 가족내 지지체계와 아동의 성별 모두가 초기의 유아원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원이 시작한 후 첫주와 6주후에 아동의 적응도가 변화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로는,

1. 어머니의 격리불안, 가족내 지지체계와 아동의 성별이 아동의 초기 유아원 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의 초기 적응과 6주후의 적응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어머니와 아동의 격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애착에 대해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고, 유아원의 초기 적응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 보고자 한다.

John Bowlby(1982)는 애착 형성의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동물 행동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영아와 부모간의 초기 정서적 유대관계를 연구한 정신분석학자였다. 영아는 선천적으로 어른에게 신호를 보내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른은 생물학적으로 신호에 반응하는 것으로 애착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Bowlby는 이것을 환경 내에서 부모-자녀가 가지는 종 특유의 행동 성향으로 보고 있다. 한 예로 엄마가 아이와 격리될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하려는 엄마의 능력이 위협받게 되어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본능이 불안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보다 최근에 Mahler와 동료 연구자들은 아동의 분리와 개체화 과정(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에서 엄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Mahler, Pine, & Bergman, 1975). 아이들은 엄마를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할 때 격리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엄마는 애착이 지나쳐서 엄마와 아이간의 공생관계(symbiotic stage)가 길어져 독립심을 상실시킨다고 하였다. Mahler와 동료들이 제기한 이론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아는 36개월까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자아를 인식하는 개체화(individuality) 과정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Mahler와 Bowlby가 언급한 격리에 대한 개념은 차이가 있는데, 먼저 Mahler는 공생관계에 있는 엄마로부터 아이가 분화되는 심리 내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반해, Bowlby는 영아와 엄마의 격리불안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격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신체적 접촉과 애정적인 상호작용은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되지만, 격리는 두 사람 모두 유쾌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애착관련 선행연구는 어머니를 일차적 애착 대상으로 하여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을 연구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져 왔는데, Ainsworth의 실험실상황을 변형하여 질문지등으로 애착을 측정 한 소수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고경애, 1984; 송지연, 1989). 최근들어 Ainsworth의 실험실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한 이영환(1993)의 연구는 영아의 애착대상 범위를 아버지로 확대하였다.

격리될 때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Hock(1984)은 아동이 집 밖의 보육을 경험하게 되면 엄마도 불안을 느낀다고 하면서 엄마의 격리불안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에 포함되는 3가지 요인으로는 (1) 격리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엄마의 격리불안; (2) 아이가 집 밖의 보육에 잘 적응하는지, 격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엄마의 인식; (3) 엄마의 취업과 관련된 격리불안 등이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Martin-Huff(1983)는 아동이 유치원에 적응하는 것과 엄마의 격리불안 간에는 일치하는 유형이 있다고 보고하였는

데, 즉 엄마의 격리불안이 크면 클수록 아동이 적응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원에서 아이와 헤어지는 시간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리고 특히 남아일 경우 오래 걸린다는 연구도 있다(Cummings & Beagles-Ross, 1984; Field et al., 1984). Weinraub와 Frankel(1977)에 따르면, 부모의 부재시에 40%의 엄마가 아이를 걱정한 반면, 아빠는 한 사람도 걱정하지 않았고, 75%의 엄마와 단지 35%의 아빠만이 아이가 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부모는 그들의 걱정과 기대는 일치하게 행동을 하고, 부모가 헤어질 때 보여주는 행동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유아들의 격리과정은 사회 심리적 접근인 격리불안(separation-distress)모델과 성숙격리(maturation-separation)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Peery & Aoki, 1982).

격리불안 모델은 부모 자녀 관계의 애착에 기초하는데 아동이 자라나 더 큰 사회환경으로 나아가면서 "초월상태"로 가기까지, 특히 영·유아기시기에 부모와 격리되면서 불안과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 성숙격리 모델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나는 격리과정에 초점을 둔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 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아이들의 욕망은 또래 관계로 발전되거나 집 밖의 경험을 해 보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영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격리를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데 여러 연구자들도 4살이 되면 울음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ield et al., 1984; Rossetti-Ferreira et al., 1985).

18개월 이상의 백인 중류 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실 상황이 아닌 곳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Peery & Aoki, 1982; Field et al., 1984; Rossetti-Ferreira et al., 1985), 12-18개월의 영유아보다 나이가 든 아동은 덜 불안해하였다. Peery와 Aoki(1982)는 유아원에 입학해서 84명의 유아와 부모들이 서로 떨어질 때 보여주는 비언어적 행동을 조사하였다. 앞서 성숙격리 모델에서 말해 주듯이, 아동은 유아원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eld와 동료들(1984)은 유아원에 등록된 56명의 영유아들과 부

모들의 격리행동과 재결합 행동을 관찰하였다. 유아들은 아주 어린 영아보다 격리될 때 부모와 시간소비를 덜하였고, 저항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Rossetti-Ferreira와 동료들(1985)도 탁아소에서 엄마와 격리되는 59명의 아동을 관찰하였다. 이 종단적인 연구는 격리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15개월에 시작되어 27개월, 33개월,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불안함을 보이지 않는 39개월까지 계속되었는데, 연구자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점차 증가한 것을 주목하였다.

아동이 초기에 유아교육현장에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후기에도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체로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Belsky & Steinberg, 1978). Ziegler(1985)도 아동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고 격리불안을 덜 느끼게 하려면, 대상영속성의 개념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초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엄마가 며칠 학교에 같이 다녀서 선생님과 학교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Passman과 Longeway(1981)의 연구도 격리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동이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오거나, 부모의 사진을 학교에 붙여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유아원의 명단을 입수한 후, 무작위로 뽑은 다음 차례로 접촉을 가졌다. 유아원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원장과 선생님들이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다수의 유아원생들이 이전에 탁아 경험이 없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동의 어머니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97명의 아동 가운데 91명의 어머니들이 질문지에 응답해 주었고, 응답한 질문지 가운데 17명은 취업모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명의 아동이 장기 결석을 하여 관찰을

할 수 없어서 최종 72명(남아 35명, 여아 37명)의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 모두를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3, 4세에 유아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5명은 2.5세에 시작했다. 평균연령은 47.83개월로 나타났고, 대상의 약 60%정도가 첫 아이였으며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비슷했다.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30.4세였고 모두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유아 행동 질문지(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연구대상 어린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유아 행동 질문지 (Behar & Stringfield, 1974)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3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들의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들을 교사들이 3점 척도, 즉 0점(해당 없음)에서 2점(자주 나타남)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전체문항에 대하여 .67로 나타났다.

2) 아동 관찰법(The Child Observation System)

아동 관찰법은 유아원에서 자주 관찰되는 어린이들의 대표적인 행동 1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3가지 행동 유형-의존형(1점), 중립형(2점), 활동형(3점)-의 하나로 구분되는데(Heathers, 1955), 예비관찰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으며 기록법과 병행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아동이 유아원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어른 특히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점차로 또래와의 접촉 또는 교구를 사용함으로써 활동형으로 되어간다는 기본 가정아래 유아 행동 질문지와 함께 각 아동의 초기 유아원 적응 행동을 관찰하는데 사용되었다. 아동 관찰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아동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은 5명의 어린이를 한 조로 하여 실내자유 놀이시간에 한 아동을 1명씩 차례로 5명을 계속하여

각 아동이 5분이 될 때까지 25분간 비참여관찰을 하였다. 한 아동을 5분간 계속 관찰하는 것보다 1분씩 관찰함으로써 아동의 다양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김지은, 김진숙, 1995). 관찰을 진행하면서 15초 시간간격으로 기록법(running account records)을 남기고, 이후에 14항목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분석하였다. 유아행동질문지와 같이 유아원의 학기가 시작한 후 2주내에 한번, 그리고 6주가 지난 후 다시 한번 관찰하였다.

교실 관찰 수행은 4명의 관찰자가 하였다. 실제 관찰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견습기간을 가지고 3,4세 예비연구 대상 아동의 행동을 관찰기록으로 옮겨놓는 연습을 하였다. 실제 관찰에서 관찰자 1명씩과 연구자는 1차와 2차 관찰시기에 5분간 계속해서 두 아이를 관찰한 것을 기초로 관찰자간 신뢰도(inter-observer reliability)를 얻었는데 신뢰도 계수는 평균 85%에서 95%의 일치도가 나왔다. 관찰기록이 완성된 이후에 연구자는 14항목으로 분류하였고, 1차, 2차 기록에서 무작위로 10%를 뽑아 관찰자 가운데 1명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재분류하도록 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연구자와 관찰자 사이에 91%의 일치도를 얻었다. 또한 실제 관찰기록과 이것을 분류한 것을 가지고 연구자와 관찰자간에 신뢰도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자유놀이 시간에 1분씩 아동을 차례로 관찰하여 100개의 기록을 만들고 분류한 다음 무작위로 10%를 뽑아 두사람의 기록을 비교해 본 결과 93%의 일치도를 얻었다.

아동관찰법에서 사용한 14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의존형

1. 엄마와 상호작용을 한다.
2.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가까이 가거나 혹은 그들의 놀이를 지켜본다.
3.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과장하거나 혹은 지나친 주의, 승인을 얻으려고 한다.
4. 의도적으로 선생님, 친구로부터의 자극(격려)을 무시한다.
5. 다른 아이의 놀이를 방해한다.
6. 주위가 산만하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 (15초이

상).

7.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예: 흐느껴 울거나, 소리 치고, 거절한다.).

중립형

8. 다른 아이의 방해와 공격을 저지한다.
9. 선생님이나 친구의 말에 대답한다.

활동형

10. 혼자서 열중하여 논다 (30초 이상).
11. 다른 아이의 놀이에 기여하거나 도움을 준다.
12.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이를 한다.
13. 선생님 혹은 아이들과 노는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접촉(교제)한다.
14. 즐거움(만족)을 표시한다 (예: 웃음, 미소).

3) 어머니 격리불안척도(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자녀가 유아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가 느끼게 되는 불안은 Hock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어머니 격리불안척도를 사용하여 5점척도로 계산하였다(Hock et al. 1989). 이 도구는 격리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일반적인 불안감, 격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 등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여 2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연구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9로 나타났다.

4) 어머니 배경 질문지(The Maternal Background Questionnaire)

어머니 배경 질문지에는 가족의 구성원, 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 아버지의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3,4세의 자녀를 사립 유아원에 보낼 수 있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볼 때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아 아버지를 직업으로 분류해 보았더니 60%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Beeghley, 1989). 또한 가정 내에 어머니 이외에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어른 즉, 지지체계(support system)가 있을 때에는 한사람당 1점씩 점수를 주어 계산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도구가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또는 우리 문화권에 타당한 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 3명에게 의뢰를 해서 2차의 수정을 거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 격리불안척도와 어머니 배경 질문지는 5명의 어머니에게 응답하도록 했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행동 질문지는 5명의 유아원 선생님이 기입하도록 했는데 항목의 일부 단어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조정하였고, 아동관찰법에 대해서는 평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2) 본 조사

서울의 중류층 거주지에 있는 4곳의 유아원에서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전화접촉을 가진 후 1차 방문시에 먼저 유아원 원장과 선생님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학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연구의 내용과 참여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고 자녀와 함께 참여의사가 있을 때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격리불안척도, 어머니 배경 질문지와 회수봉투는 선생님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학기가 시작한 후 5일 이내에 회수되었다. 선생님에게는 유아행동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학기가 시작하면 2주와 6주째에 아동을 관찰하여 기입하도록 했다. 연구자와 관찰자는 같은 기간동안 자유놀이 시간에 각 아동을 관찰하여 아동관찰법에 기록하였다.

IV. 연구결과

아동의 초기 유아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먼저 어머니의 격리불안척도(MSAS)와 가족내 지지체계(support system)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나와있다.

MSAS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7~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이 표본의

〈표 1〉 MSAS와 가족내 지지체계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남아 (N=35)		여아 (N=37)		전체 (N=7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SAS 전체	18.34	2.48	18.79	2.05	18.57	2.26
가족내 지지체계	1.69	1.37	1.46	0.93	1.57	1.16

평균은 18.57이었고 표준편차는 2.26이었다. 가족내 지지체계의 수는 한 가정 내에 어머니 이외에 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을 때 1점씩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평균 1.57명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16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주요한 지지체계로 나타났다.

유아행동질문지(PBQ)와 아동관찰법(COS)척도를 이용하여 유아원이 시작하고 2주에 한번 측정하고, 6주가 지난 다음 측정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 〈표 3〉에 나와 있다.

PBQ의 점수 범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첫주의 평균은 12.54이고 표준편차는 10.73이었다. 6주후의 PBQ 평균 점수는 14.82였고 표준편차는 11.06이었다. COS는 적응을 잘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 첫 주 평균점수는 22.81이고 표준편차는 9.81이었으며, 6주

후의 평균은 29.17이고 표준 편차는 13.31이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초기 유아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표 4〉, 〈표 5〉에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에 가족내 지지체계와 PBQ의 첫 주 점수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PBQ 첫 주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격리불안, 가족내 지지체계와 아동의 성별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 변인 가운데 가족내 지지체계는 PBQ 첫 주 점수 변량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내 지지체계와 아동의 성별은 5%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유의한 변량의 증가이었다. 특히 각각의 성별로 나누어 분석을 해 본 결과 남아의 경우 가족내 지지체계는 PBQ 첫 주 점수 변량의 28%를

〈표 2〉 PBQ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남아 (N=35)		여아 (N=37)		전체 (N=7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BQ 첫 주	14.06	11.24	11.11	10.18	12.54	10.73
PBQ 6주	16.54	11.90	13.19	10.10	14.82	11.06

〈표 3〉 COS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남아 (N=35)		여아 (N=37)		전체 (N=7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OS 첫 주	23.63	12.37	22.03	6.63	22.81	9.81
COS 6주	31.40	14.91	27.05	11.40	29.17	13.31

〈표 4〉 남아의 초기 유아원 적응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MSAS	SUPS	연령	PBQ I	PBQ 6주	COS I	COS 6주
MSAS	--	.26	-.03	-.09	-.07	.16	.25
SUPS		--	-.45*	.48*	.38	-.06	-.02
연령			--	-.52**	-.40*	.35	.57**
PBQ I				--	.93**	-.39	-.49*
PBQ 6주					--	-.30	-.48*
COS I						--	.47*

* = .01 ** = .001

〈표 5〉 여아의 초기 유아원 적응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MSAS	SUPS	연령	PBQ I	PBQ 6주	COS I	COS 6주
MSAS	--	.17	.09	-.15	-.25	.33	.22
SUPS		--	-.21	-.03	-.16	.25	-.09
연령			--	-.07	.09	.03	.49*
PBQ I				--	.82**	-.11	-.38*
PBQ 6주					--	-.02	-.15
COS I						--	.14

* = .01 ** = .001

〈표 6〉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모델에 의한 각 변인들이 PBQ 첫 주 점수에 미치는 효과 검증

Predictor	전체 R ²	R ² 증가	F
분석 1 전체 (N=72)			
MSAS	.02	.02	.271
지지체계	.12	.10	.006
성별	.13	.01	.447
상호작용			
MSAS/성별		.001	.767
SUPS/성별	.18	.05	.048
분석 2 남아 (N=35)			
MSAS	.01	.01	.591
지지체계	.28	.28	.001
분석 3 여아 (N=37)			
MSAS	.02	.02	.371
지지체계	.02	.00004	.969

〈표 7〉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모델에 의한 각 변인들이 COS 첫 주 점수에 미치는 효과 검증

Predictor	전체 R ²	R ² 증가	F
분석 1 전체 (N=72)			
MSAS	.04	.04	.098
지지체계	.04	.00004	.956
성별	.05	.01	.381
상호작용			
MSAS/성별		.00002	.974
SUPS/성별	.07	.02	.290
분석 2 남아 (N=35)			
MSAS	.02	.02	.369
지지체계	.03	.01	.566
분석 3 여아 (N=37)			
MSAS	.11	.11	.048
지지체계	.14	.04	.231

〈표 8〉 PBQ로 측정한 첫 주와 6주후의 유아원 적응도

	평균	표준편차	t
분석 1 전체 (N=72)			
첫주	12.54	10.73	
6주	14.82	11.06	-3.63
분석 2 남아 (N=35)			
첫주	14.06	11.24	
6주	16.54	11.90	-3.39
분석 3 여아 (N=37)			
첫주	11.11	10.18	
6주	13.19	10.10	-2.0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S 첫 주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격리불안, 가족내 지지체계와 아동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는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 전체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각각의 성별로 나누어 분석을 해 본 결과 여아의 경우 MSAS는 COS 첫 주 점수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초기 적응과 6주후의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PBQ와 COS 척도를 이용하여 첫 주와 6주후의 유아원 적응도로 대별하여 t검증을 한 결과 〈표 8〉,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주와 6주후의 적응도에 있어서 COS를 이용한 결과 6주후에는 첫주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BQ를 사용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9〉 COS로 측정된 첫주와 6주후의 유아원 적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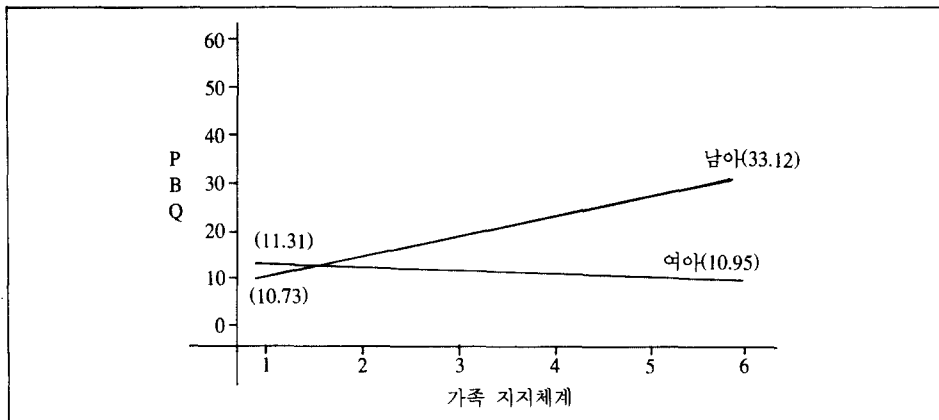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t
분석 1	전체 (N=72)			
	첫주	22.81	9.81	
	6주	29.17	13.31	-4.06
분석 2	남아 (N=35)			
	첫주	23.63	12.37	
	6주	31.40	14.91	-3.23
분석 3	여아 (N=37)			
	첫주	22.03	6.63	
	6주	27.05	11.40	-2.48

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초기 유아원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가운데 〈표 6〉에서 보았듯이, 남아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에서 가족내 지지체계가 PBQ 첫주 점수 변량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 지지체계와 성별간의 상호작용을 〈그림 1〉로 나타내 보면 여아의 경우 가족내 지지체계의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에 남아의 경우 집안 내에 가족 지지체계가 많을수록 초기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배경 질문지에 나타난 남아들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5명의 남아 가운데 9명이 집안 내 가족 지지체계가 있었고 그 중 7명은 출생 순위가 첫째였다. 이들의 PBQ 첫주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 14.0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 적응이 힘든 것으로 보였다. 전체 표본 72가구 가운데 19가구가 가족내 지지체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가족제도하에 있는 남아의 경우 예로부터 남아 선호사상과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문화적 요인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가족의 기대와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바 초기에 유아원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1〉 가족내 지지체계의 성별간의 상호작용

따라서 가족내 지지체계가 있고 출생순위가 첫째인 남아의 경우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의존적이다가 유아원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오면서 독립심을 나타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7>에 나타난 바를 보면, 각각의 성별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여아의 경우 MSAS는 COS 첫주 점수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을 떠나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유아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특히 아들보다는 딸을 좀 더 연약하고 나약하게 생각하여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주가 지난 후의 유아원 적응도를 COS를 사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표 9>에서도 보았듯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cCutcheon과 Calhoun(1976)의 연구에서 5-30개월 영아들의 행동을 4주 간격으로 행동목록표를 만들어 조사해보니 울거나 어른에게 매달리는 행동은 크게 감소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늘어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Martin-Huff(1983)도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하였는데 6주후에 신체적, 사회적, 지적 적응도가 나아진 것을 보여 주었다. 조사된 연구 모두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4~6주 정도가 지나면 적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PBQ의 경우 <표 8>에서 보듯이 첫주보다 6주가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적응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첫주에 유아원이 새로 시작되고 선생님들이 PBQ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가 6주후 두번째 측정인 PBQ를 사용할 때는 아동의 행동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측정하면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BQ 측정도구의 문항 자체를 검토해 보면 COS가 의존형, 중립형, 활동형인데 반하여 부정형과 의존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의 행동 변화를 관찰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측정한 PBQ의 첫주와 6주후의 점수는 <표 4>, <표 5>에서 보듯이 상관계수가 남아의 경우 $r=.93(P<.001)$ 이었고 여아의 경우 $r=.82(P<.001)$ 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나타난 중요한 결과로는 아동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머니의 태도나 가족의 지지체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기대와 그것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역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관찰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인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이 초기 유아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 부모와 아동 모두가 학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여 긴장감이나 공포감을 경감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부모나 확대가족이 있을 경우 조부모 등도 초대하여 새로운 선생님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만나 볼 수 있게 하고 학교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고경애(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 2) 김지은, 김진숙(1995). 아동행동관찰. 서울: 하우.
- 3) 송지연(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 및 물체영속성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 4) 유안진(1988). 한국의 전통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 5) 유영주(1990).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6) 이영환(1993). 낯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 박사논문.
- 7) Adams, R. E., Jr., & Passman, R. H. (1981). The effects of preparing two-year-olds for brief separation from the mothers. *Child Development*, 52, 1068-1070.
- 8)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9) Beeghly, L. (1989). *The structure of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Boston: Allyn & Bacon.
 - 10) Behar, & Stringfield, S.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5), 601-610.
 - 11) Belsky, J., & Steinberg, L.D (1978). The effects of day care: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49, 929-949.
 - 12) Blehar, M. C. (1974). Anxious attachment and defensive reactions associated with day care. *Child Development*, 45, 683-692.
 - 13)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14) Clarke- Stewart, A. (1982). And daddy makes three: The father's impact on mother and young child. *Child Development*, 49, 446-478.
 - 15) Cummings, E. M., & Beagles-Ross, J. (1984). Toward a model of infant day care: Studies of factors influencing responding to separation in day care. In R. C.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Qualitative variations and development*(pp. 159-182). New York: Praeger.
 - 16) Field, T., Gewirtz, J. L., Cohen, D., Garcia, R., Greenberg, R., & Collins, K. (1984). Leave-taking and reunions of infants, toddlers,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Child Development*, 55, 628-635.
 - 17) Heathers, G. (1955). Emotional dependence and independence in nursery school pla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87, 37-57.
 - 18) Hock, E.(1984). The transition to day care: Effect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n infant adjustment. In R. C.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Qualitative variations and development*(pp. 183-205). New York: Praeger.
 - 19) _____, McBride, S., & Gnezda, M.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 20) Jorde, P. (1984, March). Transitions: The influence of parent's attitudes and behaviors on the adjustment of two year olds to a new school experi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Los Angel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52 307)
 - 21) Mahler, M., Pine, E.,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 22) Martin- Huff, E. (1983). Parent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children's 'early adjustment to 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23) McBride, S., & Belsky, J. (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07-414.
 - 24) McCutcheon, B., & Calhoun, K. S. (1976).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a day care sett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6(1), 104-108.
 - 25) Miyake, K., Chen, S., & Campos, j. (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An interim repor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26) Passman, R.H., & Longeway, K. P. (1981, August). Effects of mother photographs on separation di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05 301)
 - 27) Peery, J, C., & Aoki, E. Y. (1982). Leave-taking behavior between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 71-81.
- 28) Rossetti-Ferreira, M. C., Secaf, R. E., Blurton-Jones, N. G., Farquhar-Brown, M., & MacDonald-Moore, L. (1985). Adult-child and peer interaction during brief separa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 163-173.
- 29)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30) Weinraub, M., & Frankel, J. (1977). Sex differences in parent-infant interaction during free-play, departure, and separation. *Child Development*, 48, 1240-1249.
- 31) Ziegler, P. (1985). Saying good-bye to preschool. *Young Children*. 40(3). 11-15.